

〈和蘇長公東坡〉에 드러난 다산의 유인(幽人)공간 고찰

황 민 선*

차 례

1. 머리말
2. 〈和蘇長公東坡〉와 다산의 유인(幽人)공간
3. 〈和蘇長公東坡〉에 보인 유인(幽人)공간의 특징
4. 맺음말

Ⅰ 국문초록 Ⅰ

〈화소장공동파(和蘇長公東坡)〉는 유배 초 다산의 이상 공간에 대한 초기 구상을 볼 수 있는 작품이다. 특히 다산은 이 시기 다산초당과 이상 공간에 대한 글들을 통해 유인(幽人)의 삶을 실천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화소장공동파(和蘇長公東坡)〉를 통해 다산이 이상적 유인 공간을 보고자 하였다. 이에 현실을 도피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무실(務實)의 태도와 가난한 선비[貧士]가 궁핍에 매몰되지 않고 은일을 통해 선비다움을 지켜내고자 하는 의지가 그의 이상적인 유인 공간에 담겨 있다고 보았다. 이처럼 〈화소장공동파(和蘇長公東坡)〉는 다산초당으로 구현되기 전 다산이 생각한 이상적 유인 공간의 초기 구상에 대한 단면이 담겨 있는 작품으로 그 의미가 크며, 이는 다산의 원림 인식과 이상 공간에 대한 인식을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핵심어 : 다산 정약용, 和蘇長公東坡, 다산초당, 유배, 원림, 원림 인식, 이상 공간

1. 머리말

강진군 만덕산 남쪽 부근에 있는 다산초당은 다산 정약용(茶山 丁若鏞, 1762~

* 동신대학교

1836)이 강진으로 이배된 7년 뒤인 1808년에 지어졌다. 다산은 원림과 조경에 조예가 깊어 유배되기 전에도 기거하는 곳마다 원림을 지은 것으로 유명하다. 그 중에서 다산초당은 유배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다산이 만들어 놓은 이상적 유인 공간으로 의미가 깊다. 그러나 다산초당은 관념적인 이상향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중농주의 실학자로서 그리고 유학을 공부하는 도학자로서 유배의 궁핍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면서도 동시에 이를 은일로 극복하려는 다산의 의지가 집약되어 있는 공간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다산초당의 공간구성이 초당과 동암, 서암과 같은 건물과 경작을 위한 채마밭(菜圃)인 생활을 위한 공간과 석가산(石假山)이 있는 방지와 화계(花階), 그리고 차를 위한 다초(茶籠)와 약천(藥泉)인 의경 구현을 위한 공간으로 나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이처럼 다산초당은 유배라는 번뇌와 실질적인 궁핍을 선비의 은일로 극복하려는 유인(幽人)의 공간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런 다산초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산의 시문이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그 중에서 <화소장공동파(和蘇長公東坡)>는 매우 독특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 시는 강진으로 이배된 지 몇 년간의 시간이 흐른 뒤 다산초당을 짓기 3년 전에 소식(蘇軾)의 <동파팔수(東坡八首)>를 차운한 시이다. 소식의 <동파팔수(東坡八首)>는 유배의 궁핍을 해소하기 위한 마정경(馬正卿)의 배려로 황무지를 개간하며 지은 것으로 다산은 이 시에서 평소 바라던 채마밭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낸다. 이는 다산이 살았던 조선 후기 서울을 중심으로 유행했던 원림 문화 중 하나인 의원기(意園記)나 의원도(意園圖) 제작 문화와 매우 유사하다.

또한 이런 의원문화에 영향을 받아 쓴 유인(幽人)의 생활공간에 대해 기술한 다산의 의원기인 <제황상유인첩(題黃裳幽人帖)>이 <화소장공동파(和蘇長公東坡)>와 마찬가지로 강진 유배시기에 쓰였다는 것도 주목된다. 즉 <화소장공동파(和蘇長公東坡)>는 궁핍한 유배 공간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구상을 통해 유인(幽人)의 공간으로 극복하려는 다산의 유배 초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이 후 다산초당으로 구현된 이상적인 유인 공간에 대한 초기 구상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화소장공동파(和蘇長公東坡)>를 의원문화나 다산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유인공간과 연결한 연구는 없었다.¹⁾

<화소장공동파(和蘇長公東坡)>는 이배 초 다산이 느낀 참담한 심정과 한편으로 이를 극복하려는 다산의 의지가 담겨 있는 시이다. 그 극복의 기저에는 유인의 흥취를 잃지 않으려는 다산의 의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화소장공동파(和蘇長公東坡)>를 통해 유배 초 다산이 구상한 이상적인 유인공간의 특징을 알아보고자 한다.

2. <和蘇長公東坡>와 다산의 유인(幽人)공간

<화소장공동파(和蘇長公東坡)>는 일정한 기거 공간 없이 읍내의 주막에서 머물며 지내던 유배 초에 소식의 <동파팔수(東坡八首)>를 차운하여 쓴 시이다. <동파팔수(東坡八首)>는 황주에 유배되어 궁핍해진 소식이 벗인 마정경의 배려로 옛 병영지였던 황무지를 받아 생활을 위해 개간을 하고 농사를 짓는 고충과 심정을 토로한 시이다. 즉 <화소장공동파(和蘇長公東坡)>는 유배 초 거처도 없이 지내야 했던 다산의 심경을 비슷한 처지에 쓴 소식의 <동파팔수(東坡八首)>에 기대어 풀어낸 시이다. 때문에 <화소장공동파(和蘇長公東坡)>는 다산이 유배의 궁핍과 고난을 해결하고자 하는 열망이 절실히 담겨 있다. 다산은 그 중에서도 농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에 집중한다.

이는 원래 채마밭 가꾸기를 좋아하는데 유배 온 이후로 그런 생각을 한지가 오래나 유배 상황 상 할 수 없어 마음에만 간직하고 있었는데, 이웃의 작은 채마밭을 보고 소식의 <동파팔수(東坡八首)>가 지어진 고사가 생각나 이를 차운하여 채마밭을 꾸미고자 하는 마음을 나타내 본다²⁾고 고백한 <화소장공동파(和蘇長公東坡)>의 시서(詩序)에 잘 드러난다.

1) <화소장공동파(和蘇長公東坡)>에 대한 개별논문은 많지 않는데 김상홍이 쓴 「茶山の <和蘇長公東坡>攷」(『동아시아고대학』 19집, 동아시아고대학회, 2009) 정도가 있다. 이 논문은 이 시가 차운한, 소식의 <동파팔수(東坡八首)>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화소장공동파(和蘇長公東坡)>를 개관하여 소개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2) <和蘇長公東坡>, 『與猶堂全書』, 一集, 五卷, “余雅好治園 流落以來 益以無事 久有想願 顧地窄力詘 迄今未就 然心勿忘也 隣人有治小圃者 時往而觀 亦復怡然 其性好可知已 昔馬正卿請地于長公 使得躬稼 厥有八篇之詩 世卑義異 不可冀遇 悵然有述 以昭其志”

이처럼 현재는 없지만 원하는 공간의 모습을 상상하여 시로 형상화 한 것은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후반, 서울·경기권 선비들을 중심으로 제작된 의원기와 그 의도가 유사하다.³⁾ 다산이 살았던 조선 후기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서울이 중심이 되면서 도시 문화가 형성이 되는데, 원림 또한 그에 영향을 받았다. 교외가 중심이 되었던 원림을 도시 안에 조영하는 문화가 유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도심 안에 원림을 조영할 만한 사정이 되지 못한 선비들은 자신이 꿈꾸던 원림을 글이나 그림을 통해 구체화시켰는데, 그것이 의원기와 의원도이다.

다산 또한 이상적인 원림 공간에 대한 의원기인 <제황상유인첩(題黃裳幽人帖)>을 썼는데 주목할 것은 <제황상유인첩(題黃裳幽人帖)> 역시 <화소장공동파(和蘇長公東坡)>와 같은 강진 유배기에 쓴 것이다. 그리고 <제황상유인첩(題黃裳幽人帖)> 또한 농사를 지을 공간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화소장공동파(和蘇長公東坡)>와 맥락을 같이 한다.

주역(周易) 이괘(履卦)가 무망(无妄)으로 변하는 효사(爻詞)에, “유인(幽人)이라야 정(貞)하고 길(吉)하다.”고 한 것에 대하여, 나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간산(艮山)의 아래와 진림(震林)의 사이에서, 손(巽)으로써 은둔(隱遯)하여 천명(天命)을 우러러 순응하며, 간산에는 과일을 심기도 하고 진림에는 채소를 심기도 하면서, 큰 길을 밟으며 평탄하게 걷고, 천작(天爵)을 즐기며 화락하게 생활하는 것이다.” 이것은 은사(隱士)의 느긋함이니 유인(幽人)의 일이 그야말로 길(吉)하지 아니한가.⁴⁾

위 인용문은 <제황상유인첩(題黃裳幽人帖)>의 첫 부분이다. <제황상유인첩(題黃裳幽人帖)>은 제자인 황상이 물어온 이괘의 구이 효사인 “유인(幽人)이라야 정(貞)하고 길(吉)하다”는 뜻을 풀이하면서 그 세목을 유인의 생활공간을 설명하며 알려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다산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의 형태가 곧 유인의 삶이며, 그런 유인의 삶이 실천되는 생활공간이 무엇인

3) 안대희, 「18·19세기의 주거문화와 상상의 정원 - 조선 후기 산문가의 기문을 중심으로」, 『진단학보』 97집, 진단학회, 2004, 120쪽.

4) 『與猶堂全書』, 一集, 十四卷, <題黃裳幽人帖>, “在周易履之无妄曰幽人貞吉 余釋之曰艮山之下 震林之間 巽以隱遯 仰順天命 或蒔良菓 或種震菜 履大道而坦坦 樂天爵以熙熙 此碩人之寬也 幽人之事 不已吉乎”

지를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주역』 이괘 <설괘전(說卦傳)>의 “간은 산이 되고 ... 과일과 풀의 열매가 된다[艮爲山 ... 爲果蓏]”와 “진은 심었을 때 싹이 터나오는 것이 된다[震 ... 其於稼也 爲反生]”는 부분을 인용하여 다산은 ‘간산의 아래와 진림의 사이에 숨어서 간산에는 과일을 심고 진림에는 채소를 심으며 사는 삶이 곧 유인의 삶이라 정의 내린다.

이를 보면 타의든 자의든 세상과 떨어진 선비로서 다산이 선택한 유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다. 다산이 생각한 유인은 관념적인 것에서 나아가 실질적인 궁핍을 해소 할 수 있는 노동이 포함된 현실과 맞닿은 개념인 것이다. 이는 성리학을 하는 사람들이 큰 번고도 없는데도 스스로 은사(隱士)로 부르며 거드름을 피우며 벼슬을 하지 않는 세태를 비판하고⁵⁾ 선비란 반드시 손발을 놀리지 말고 농사일과 같은 백성들의 향산과 밀접한 일을 하여야 나라가 바르게 선다⁶⁾고 하며 벼슬을 할 수 없는 선비의 태도를 말했던 다산의 생각과 일치한다.

세속과 떨어진 벼슬을 할 수 없는 선비로서 다산이 선택한 유인의 삶은 곧 실질적 궁핍이 해소 가능한 매우 현실적인 것이었다. <제황상유인첩(題黃裳幽人帖)>은 바로 그런 다산의 이상적인 유인의 공간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것이다. 실제로 <제황상유인첩(題黃裳幽人帖)>에서는 의경 구현 공간이나 수양을 위한 공간보다는 경작을 위한 공간에 대한 설명의 비중이 매우 크다. 이런 다산의 유인 공간은 <화소장공동파(和蘇長公東坡)>에서 채마밭을 꿈꾸던 다산의 모습과 상통한다.

이런 부분은 <제황상유인첩(題黃裳幽人帖)>에서 유인의 생활공간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잘 드러난다. 다산이 구상한 유인의 생활공간은 크게 담장 안의 서너 칸짜리 초가집[構茆屋三四間]과 그 주변, 그리고 담장 안과 담장 주변(약 오십 여보)까지의 뜰[庭], 그리고 백 여보 쯤 떨어진 곳의 전담 수백 묘, 이렇게 세 공간으로 나뉜다. 집을 중심으로 조금씩 담장 너머로 확장되는 구조를 지녔

5) <五學論 一>, 『與猶堂全書』, 一集, 十一卷, “今爲性理之學者 自命曰隱 雖弈世卿相 義共休戚 則勿仕焉 雖三徵七辟 禮無虧欠 則勿仕焉 生長輦轂之下者 爲此學則入山 故名之曰山林”

6) <田論 二>, 『與猶堂全書』, 一集, 十一卷, “夫其有土之游也 故地利不盡闢也 知游之不可得穀也 則亦將轉而緣南畝矣 土轉而緣南畝而地利闕 土轉而緣南畝而風俗厚 土轉而緣南畝而亂民息矣”

는데, 이는 유인이 공부하고 수양하는 공간에서 시작해서 생활의 계획인 본격적인 농업의 공간으로 차츰 시야가 넓어지는 구조이다.

특히 선비로서 수양하는 공간인 초가집에 대한 설명과 농사가 진행되는 전답 [良田] 사이에 있는 뜰[庭]은 우와 좌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설명되는데, 이곳이 바로 채소를 심을 수 있는 채마밭에 대한 내용이다. 이 부분에서 다산은 오른쪽에 산골에서 물을 끌어다 못을 만들고 남새밭에 흐르게 하여 아욱, 배추, 마늘, 오이, 고구마 등을 종류별로 심고, 제대로 된 방법으로 가꾸어야 채마밭이라고 겨우 이름 할 수 있다고 자세히 기술한다.⁷⁾ 이런 모습은 자신이 직접 가꾸는 채마밭을 열망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시로 기술한 <화소장공동파(和蘇長公東坡)>와 맥이 닿아있다.

海菜雖種種	해초 종류 비록 가지가지라도
腥鹵不足數	비릿해서 치잘 것이 못 되고
山蔬信香美	향기롭고 맛있기는 산나물이라
龍肉竟虛語	용고기도 결국은 헛소리이지
吾唯愛畦種	내 좋아하는 건 오직 밭 가꾸는 것
山林此豪舉	산림에서 호탕한 일 그것 아닌가

(하략)

인용된 시는 <화소장공동파(和蘇長公東坡)>의 네 번째 수이다. 해초는 비릿하여 산나물과 비교할 것도 없고, 용고기도 결국 헛소리니 산나물을 심을 밭을 가꾸는 것이야 말로 산림에 사는 유인의 호탕한 일이다. 이런 모습은 수양 공간보다 농사나 채마밭을 가꾸는 공간을 공들여 구상했던 <제황상유인첩(題黃裳幽人帖)>의 생활공간과 연결된다. 인용된 시 외에도 <화소장공동파(和蘇長公東坡)>에는 채소의 종류를 나열하고 심는 방법을 설명하면서 이익은 적지만 배나

7) <題黃裳幽人帖>, 『與猶堂全書』, 一集, 十四卷, “庭右鑿小池 方數十武 便止 池中植芙蓉數十枋 養鮒魚 別剗篔竹作水筒 引山泉注池 其溢者從壻穴流于圃 治圃須礪平 如淨水然 割之爲方畦 蔡松葱蒜之等 別其族類 無相混糅 須用礪礪下種 苗生視之 有斑紉文 纔名爲圃也 稍遠種瓜種甘藷 繞圃植玫瑰累千株成籬 每當春夏之交 巡圃者得香烈觸鼻也 (하략)”

밤을 심는 것보다 나오니, 반찬거리나 국거리를 이웃에 가 빌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⁸⁾이라거나, 속을 비워두는 청재(淸齋)와 같은 산나물에 맛을 들리면 지지고 회치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을 것⁹⁾이라고 하는 등에서 <제황상유인첩(題黃裳幽人帖)>의 유인 공간과 상통하는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이는 비단 이 두 작품 뿐 아니라 다산초당이 지어지고 난 뒤 초당을 경영하는 모습을 쓴 시인 <일일산보매하은기진무수지도삼작기전규체석위단인연침염어기상하위체구급이위채마밭수지동지척기광곽신기대오열식명화가훼인기암석위가산일구이리만곡수천천사기공재수춘송춘이준문거형제실궁궐노여역조언수궁약비분관자탄자첨알순미위시지희범팔십운(一日散步梅下隱其榛蕪手持刀畚斫其纏糾砌石爲壇因緣浸染於其上下爲砌九級以爲菜圃遂至東池拓其匡廓新其臺塲列植名花佳卉因其巖石爲假山一區迤邐彎曲水泉穿瀉起功在首春送春而竣文舉兄弟實躬厥勞余亦助焉雖窮約匪分觀者歎咨僉曰洵美爲詩志喜凡八十韻)>에서도 볼 수 있다. 앞의 두 작품이 아직 존재하지 않은 유인의 공간에 대한 다산의 열망을 담았다면, 이 시는 실재하는 공간에서 자신의 구상대로 유인 공간을 꾸며내는 과정을 상세하게 보여준다.

이 시는 채마밭과 화계(花階)를 꾸미고, 못을 파서 석가산(石假山)을 만드는 다산초당의 모습을 만드는 과정이 상세히 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채마밭 만드는 것을 선무로 여기면서 가장 먼저 나온다. 그리고 시의 마지막에 초당을 다 완성한 소회를 “이래의 구이를 늘 보더라도 영육을 초월해야 탈이 없느니[常觀履九二 幽貞諒无咎]” 라고 마무리 한다. 이를 보면 <제황상유인첩(題黃裳幽人帖)>에서 생활공간을 구체적으로 풀이하고, <화소장공동파(和蘇長公東坡)>에서 채마밭을 열망했던 것 역시 유인의 삶을 실천하려는 다산의 의지가 담긴 것을 알 수 있다.

다산은 기약 없는 유배 상황을 유인의 삶을 실천하는 것으로 극복하고자 했다. 유인의 삶을 현실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방편이 곧 채마밭이며, <화소장공동

8) <和蘇長公東坡>, 其二, 『與猶堂全書』, 一集, 五卷, “(상략) 利細雖恥言 勝種梨與栗 盤穀與羹材 兼可塞隣乞 (하략)”

9) <和蘇長公東坡>, 其三, 『與猶堂全書』, 一集, 五卷, “(상략) 淸齋苟得味 誰人羨臍膾 (하략)”

파(和蘇長公東坡)>는 그런 다산의 초기 구상을 증명해주는 작품이다.

3. 〈和蘇長公東坡〉에 보인 유인(幽人)공간의 특징

3.1. 유배상황의 무실(務實)적 해결

앞서 보았듯이 다산이 생각한 유인의 공간에 중요한 것은 궁핍을 현실적으로 해결하면서도 유인의 절개는 잃지 않는 기본적인 농사가 가능한 작은 밭이었다. 일정한 거처가 없던 시기에 지었던 <화소장공동파(和蘇長公東坡)>가 수양을 하는 공간이 아닌, 몸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채마밭에 집중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이는 선비로서 처한 현실을 직시하며 살아야 한다는 현실 중심적인 다산의 생각을 근간으로 한다.

향리에 살면서 과원(果園)이나 채마밭을 가꾸지 않는다면 천하에 쓸모없는 사람이 다. ... (중략) ... 아욱 한 이랑, 배추 한 이랑, 무 한 이랑씩을 심고, 가지나 고추 따위도 각각 구별해서 심어야 한다. 그러나 마늘이나 파를 심는 데에 가장 주력하여야 하며, 미나리도 심을 만하다. 한여름 농사로는 오이만한 것이 없다. 비용을 절약하고 근본에 힘쓰면서[務本] 겸하여 아름다운 이름까지 얻는 것이 바로 이 일이다.¹⁰⁾

위 인용문은 다산이 두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인 <기양아(寄兩兒)> 중 일부로 선비가 힘써야 할 근본에 대한 가르침이 담겨있다. 선비가 벼슬을 하지 않고 향리에서 산다면, 반드시 과원이나 채마밭을 가꾸어 향산(恒産)의 방도로 삼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위정(爲政)을 담당해야 할 선비가 위정을 할 수 없는 현실에 처했을 때, 직접 노동을 통해 스스로의 생계를 책임지지 않는다면 천하에 쓸모없는 사람인 것이다.

10) 『與猶堂全書』, 一集, 二十一卷, <寄兩兒>, “居鄉不治園圃 天下之棄也 ... (중략) ... 葵一區松一區蘿一區 如紫茄辣茄之屬 各宜區別 然種蒜種葱 最宜致力 芹亦可種 三夏之農 莫如瓜 節用而務本 兼之得美名者此事也”

이런 다산의 태도는 유배 전에도 볼 수 있다. 책문으로 농사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는 <농책(農策)>에서도 다산은 옛날에는 요순(堯舜), 후직(后稷), 이운(伊尹)과 같은 이들도 농사꾼에서 발신(發身)하여 벼슬을 하였는데, 사농이 두 갈래로 나누어지면서 선비들이 농경의 고달픔을 모른 채, 사부(詞賦)만 성하여 백성을 좀먹고 농사를 피폐하게 하는 법이 실로 이런 데서 연유한 것¹¹⁾이라 비판하였고, 유배 직전인 1799년 에 쓴 <전론(田論)>에서도 선비가 입신을 할 수 없다면 남의 힘으로 먹고 살지 말고 직업을 바꿔 농사일이든 공업이든 상업이든 노동을 해야 한다¹²⁾고 지적했다.

이처럼 입신이 불가하여 은둔해야 하는 선비가 해야 할 우선은 바로 처한 현실에 힘써 스스로 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다산의 시각은 생산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면 생산 분배에도 참여할 수 없다는 원시유학과 닮아 있다. 또한 단순히 스스로의 세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도학을 행하는 선비라면 언제나 백성의 향산(恒産)이라는 현실의 삶에 관심을 가져야 선비의 향산도 지켜질 수 있다는 그의 철학에 기반한다.¹³⁾ 이는 <五學論>에서 노동도 벼슬도 하지 않은 채 스스로 은사라 처하며 백성들의 삶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으려는 당시 선비들을 비판한 것¹⁴⁾에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인용문의 근본에 힘써야 한다[務本]는 당부에서 근본이란 바로 선

11) <農策>, 『與猶堂全書』, 一集, 九卷, “臣竊嘗以爲士農分爲二岐 而天下之農 日趨於弊也 古者薦紳公朝者 未嘗不肇跡田間 堯之百揆 歷山之農也 虞之后稷 有邵之農也 商之保衡 起畎畝之賤者也 周之冢宰 知稼穡之艱者也 至漢猶有此意 倪寬, 卜式, 田千秋, 匡衡之徒 蓋莫不躬執耒耜 身致公相 所以備嘗艱苦 善於字牧 自夫詞科之盛 而舌耕遊食之民 紆青拖紫 蠹民病農之法 職由此輩”

12) <田論 二>, 『與猶堂全書』, 一集, 十一卷, “夫士也何人 士何爲游手游足 吞人之土食人力哉 夫其有土之游也 故地利不盡闢也 知游之不可以得穀也 則亦將轉而緣南畝矣 士轉而緣南畝而地利闢 士轉而緣南畝而風俗厚 士轉而緣南畝而亂民息矣 日有必不得轉而緣南畝者 將奈何 日有轉而爲工商者矣 有朝出耕夜歸讀古人書者矣 有教授富民子弟 以求活者矣 有講究實理 辨土宜興水利 制器以省力 教之樹藝畜牧 以佐農者矣 若是者 其功豈扼腕力作者所能比哉”

13) 황민선, 「다산 정약용의 원림관을 통해서 본 <茶山花史>」, 『국학연구론총』 13집, 2014, 242쪽.

14) <五學論 一>, 『與猶堂全書』, 一集, 十一卷, “古者學道之人 名之曰士 士也者仕也 上焉者仕於公下焉者仕於大夫 以之事君 以之澤民 以之爲天下國家者謂之士 其遭人倫之變 如伯夷, 叔齊, 虞仲, 夷逸之等隱之 餘無隱也 故素隱行怪 聖人戒之 今爲性理之學者 自命曰隱 雖棄世卿相 義共休戚 則勿仕焉 雖三徵七辟 禮無虧欠 則勿仕焉 生長輦轂之下者 爲此學則入山 故名之曰山林 其爲官也 唯經筵講說及春坊輔導之職 是注是擬 若責之以錢穀甲兵訟獄擯相之事 則羣起而病之 以爲待儒賢不然 推是義也 將周公不得爲太宰 孔子不得爲司空 子路不得折獄 公西華不得與賓客言”

비 된 자가 처한 현실, 당시의 다산에게 있어서는 바로 유배를 당해 향리에 처하게 된 현실을 말한다. 즉 현실에 힘쓰라는 다산의 당부이며, 그 현실에 힘씀[務實]은 단순히 생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선비로서의 책무를 저버리지 않으려는 다산의 결심이다. 그리고 그 실천방법으로 다산은 최소한의 자원으로 가능한 농사인 채마밭에서 찾았다. 유배 초기 채마밭에 집착한 <화소장공동파(和蘇長公東坡)>가 쓰인 것은 바로 그런 이유일 것이다.

海孺少嘉蔬	바닷가라 좋은 채소가 드물어
美者稱苧蒿	좋다는 것이 썩갓 정도라네
魚鰕俯可拾	고기나 새우가 허리만 굽히면 잡히니
誰任犁灌勞	누가 밭 갈고 물 대는 수고를 하겠나
少小謀園圃	젊은 시절 채소 가꾸고 싶었지만
計違命難逃	운명이 그래선지 뜻대로 안 되었고
南來欲還願	남으로 와서나 그 소원을 풀고자
庶以易雉膏	맛좋은 반찬 삼아보려 했더니만
願乏一稜田	돌아봐도 한귀퉁이 밭도 없으니
何由取地毛	어떻게 땅에서 나는 걸 얻겠는가
蕭條馬正卿	적막한 그때 그 마정정
悵望仁聲高	그 인성 기리며 서글퍼할 뿐이네 ¹⁵⁾

위 시는 <화소장공동파(和蘇長公東坡)>의 첫 번째 수이다. 시서(詩序)에서 언급했던 마정정과 소식의 고사를 사용하여 채소를 심고자 하는 다산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젊은 시절 원포(園圃)를 가꾸며 살 계획을 도모했다는 부분은 앞서 <제황상유인첩(題黃裳幽人帖)>에서 언급된 유인의 공간이나, <기양아(寄兩兒)> 등에서 벼슬을 하지 않고 향리에 사는 선비라면 당연히 손발을 놀리지 않

15) 『與猶堂全書』, 一集, 五卷, <和蘇長公東坡>, 본고에서는 인용한 시는 민족문화추진회(현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영인한 『한국문집총간 與猶堂全書』를 기준으로 하였다. 따라서 이하 시들에는 각주를 생략한다. 시의 번역 역시 민족문화추진회(현 고전번역원)에서 1982년부터 1994년까지 역주하여 간행한 『(국역)다산시문집』의 번역을 중심으로 약간의 수정을 하였다. 이하 시들의 번역도 동일하다.

고 부지런히 농사를 지으며 현실에 힘써야 한다는 가르침과 상통한다. 다산이 꿈꿨던 은일은 스스로 향산(恒産)을 책임지면서 동시에 농민의 삶에도 밀착할 수 있는 농사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그 꿈은 채소라고는 썩잖 정도가 다이고, 거기다 허리만 숙여도 물고기며 새우가 나니 수고스러운 농사는 다들 하려고 하지 않는 바닷가 남쪽으로 유배당해 한 귀퉁이 밭도 가질 수 없는 처지에 막힌다. 결국 옛날 마정경과 소식의 의리만 기리며 슬퍼할 뿐인 것이다.

이처럼 거처도 마땅치 않았던 다산이 바랐던 것은 채소를 기를 수 있는 귀퉁이 밭이었다. 이런 모습은 <화소장공동파(和蘇長公東坡)>와 같은 해인 1805년 겨울에 이거(移居)했던 보은산방(寶恩山房)에 머물며 아들 학가(學稼)를 맞이했던 일을 썼던 <장학가재보은산원수치세제제지야심서초창물이성편시아(將學稼在寶恩山院遂值歲除除之夜心緒惻悵率爾成篇示兒)>에서도 볼 수 있다. 이 시에서 다산은 아들에게 유자(儒者)라 이름을 듣는다면야 늙고 추해도 달계 받을 것이니, 벼슬이 닳치면 마달 것 없으나 흙 갈아 마늘심고 무른 땅엔 파며 부추를 심으며 채마밭을 가꾸며 숨어 살며 오랑캐는 멀리하고 친구도 가려사귀라는 가르침을 전한다.¹⁶⁾ 이를 보면 해배도 요원하고 거처조차 불분명했던 이 시기에 다산이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유인의 책무를 잃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자원으로 가능한 방법으로 채마밭 가꾸기를 선택한 것을 알 수 있다.

美芹可以獻	미나리는 바칠만한 물건이고
由來齊炙背	등에 짚는 햇볕도 예부터 그러했네
蘘荷復治癘	양하로는 고질을 치료하면
不勞施鍼艾	침도 뜸도 필요하지 않겠지
土產貴藷芋	토산으로 귀한 고구마가 있으니
求者此湊會	구하려는 이들 여기로 몰려든다네
南地故酥軟	남쪽은 예부터 토질 무르고 연해
不待雨破塊	비 기다릴 것 없이 흙 잘 부서지니
隣人小區畫	이웃사람의 작은 땅이

16) <將學稼在寶恩山院遂值歲除除之夜心緒惻悵率爾成篇示兒>, 『與猶堂全書』, 一集, 五卷, “苟幸獲儒名 我此甘老醜 隱居理園圃 未必讓組綬 肥壤時胡蒜 酥地植蔥韭 蠻髮不可親 交游慎所取“

在我柴門外	우리 사립문 밖에 있는데
畦畛縱違法	가꾸는 방법은 비록 틀렸어도
頗能向蕃薈	곡식이 꽤나 무성하게 자라
時復曳杖臨	때로 지팡이 끌고 가보면
性好嗟有在	내 좋아하는 것 거기 있다네
清齋苟得味	물만 먹는 청재의 참맛을 알면
誰人羨臍膾	누가 지지고 회침을 부러워할까

위의 시는 <화소장공동파(和蘇長公東坡)>의 세 번째 수이다. 여기서 다산은 미나리, 생강, 고구마와 같이 실제 생활에 밀접한 작물에 대한 품평으로 시작한다. 미나리는 두보(杜甫)의 <적갑(赤甲)>시 중에서 “등 쪼는 것은 천자에게 바칠 수 있거니와, 미나리 맛 좋음은 예부터 야인만이 안다네[灸背可以獻天子 美芹由來知野人]”라는 부분을 용사하여 쉽게 접하지만 그 가치만은 귀한 작물로 표현하였고, 생강[薑]은 침이나 땀을 쓰지 않아도 고질을 다스릴 수 있는 요긴한 작물로, 이 지역의 토산인 고구마는 구황작물로 사방에서 이를 구하려 몰려드는 귀한 물건으로 표현하며 높이 평가한다.

작물에 대한 평가는 유인의 생활에 현실적인 도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구배(灸背)와 나란히 천자에게 바칠만한 품격 있는 작물로 미나리가, 건강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약제로 생강이, 구황을 책임지는 귀한 식재료로 고구마가 쓰인다. 이 같은 작물에 대한 평가는 다산초당을 조영한 뒤 그곳에 심어놓은 초목에 대해 쓴 <다산화사(茶山花史)>에서도 볼 수 있다. 그 중에서 특히 차나무인 자초[茈萸]와 호장(虎掌)으로 약을 대신한다¹⁷⁾는 열여섯 번째 수나, 사랑채 아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채마밭을 일구어 샘물을 만든 뒤 미나리를 심어 채소 사는 돈 들일이 없다¹⁸⁾는 열여덟 번째 수를 보면 위의 시에서 나열한 작물들과 그 쓰임이 현실적으로 유인의 삶을 영위하는 것에 기반함을 알 수 있다.

17) <茶山花史>, 其十六, 『與猶堂全書』, 一集, 五卷, “茈萸些些放白花 墻頭虎掌始舒芽 山家種藥無多品 爲有山中萬樹茶”

18) <茶山花史>, 其十八, 『與猶堂全書』, 一集, 五卷, “舍下新開稅外田 層層細石閣飛泉 今年始學蒔芹法 不費城中買菜錢”

유인의 삶을 이루는데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 일상적인 작물들에 대한 품평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기르든 잘 자라는 이 지역의 토질과 연결된다. 제대로 된 농사법이 아니어도 무른 토질이라 귀한 작물들이 무성하게 자라는 것을 보면서 다산은 자신이 이를 가꾼다면 어땠을 지를 상상했을 것이다. 이런 다산의 마음은 <화소장공동파(和蘇長公東坡)> 다섯 번째 수에 읊리에 인구가 주밀하여 묵은 땅이 없는데, 시골 풍속에 구기자를 먹지 않아 귀한 약재인 구기자 가지가 늙은이처럼 늘어져 있고, 무 심는 법도 제대로 알지 못하여 곡식 뿌리듯 뻘뻘이 뿌려놓아 무가 제대로 크질 못하는 상황을 한탄하면서 나에게 채마밭을 빌려주는 이가 있다면 은혜를 잊을 수 없을 것¹⁹⁾이라 하는 데서도 잘 드러난다.

憶在長髻縣	장기에 있던 때를 생각해보면
被驅抵荒村	내쫓겨 황촌으로 간 것이지만
村居頗疏豁	그 마을은 꽤나 널찍하고
曠然恢籬垣	울도 담도 확 트여 있어서
主人老業圃	주인도 채소농사를 업으로 늘어
力役分兒孫	아들 손자까지 그 일 도왔었지
培壅解敦本	뿌리를 복돋아야 한다는 걸 알고
糞土不出門	거름 한 줌 내다 버리지 않았기에
苞蔥與辣茄	더부룩한 파며 가지 같은 것이
芳烈四時存	사시장철 향기롭게 있었으며
螿蟬大如罍	꽃게도 크기가 향아리만 하여
糝滋得甘餐	찌놓으면 좋은 찬이 되었는데
如今鎖城府	지금처럼 꼭 막힌 성부에서야
農事那可論	농사 이야기를 어떻게 하겠는가
平生咬菜志	평생 채소를 먹고자 하는 뜻은
逝將遺後昆	후손에게 유언으로나 남겨야겠네

19) <和蘇長公東坡>, 其五, 『與猶堂全書』, 一集, 五卷, “邑里人煙稠 寸土何曾荒 漫漫稻與麥 青黃遞入望 鄉俗不餐紀 長條至老蒼 投種密如粟 菁菘且不昌 生憎豆葉羹 衆嗜如淫羊 如逢借圃人 至惠誠難忘”

위의 시는 <화소장공동파(和蘇長公東坡)>의 일곱 번째 수이다. 이 시는 강진으로 이배되기 전 장기에서 유배되었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쓴 시이다. 장기는 첫 유배지로 이 시기 다산은 강진 이배 후 몇 년이 지난 <화소장공동파(和蘇長公東坡)>를 썼던 시절보다 더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이런 심리적인 부분은 다산시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 실제로 장기 유배기부터 민초들의 극심한 고통을 생생한 언어로 그려내고, 현실 정치의 강력한 비판을 우화시 등과 같은 다양한 형식으로 표현하면서 이 시기는 다산시의 전환점이 되었다.

동시에 이 때 시들은 현실에 대한 비판 뿐 아니라 개인적 고통을 여실히 드러내는 시들 또한 많다. 하늘 가득 그물인 것을 알지 못하고, 경솔히 날개를 핀 자신을 비웃으며, 나아말로 철저한 명칭이라 치절한 자조를 하기도 하고,²⁰⁾ 여름날 덥고 습한 남쪽에서 병들어 누워있으니 지난날 한양에서 노닐며 바람을 쐬었던 누정들이 그리워 소리를 지르고 발광을 해보아도 아무 소용이 없다²¹⁾는 고백을 서문에 하면서 서울에서 노닐던 누정들의 기억을 시로 쓰며 시름을 견디려는 모습 등에서 당시 다산의 심적 고통을 볼 수 있다. 특히 선선한 서울 경기 지방에서만 살았던 다산에게 남쪽 바닷가의 습하고 더운 기후는 견디기가 힘들었던지, 장기에 대해서 깨를 심지 않고 생선으로 기름을 짜서 쓰는 습속에 온 집안이 비린 냄새가 나고, 김무침 접시엔 머리카락이, 가마솥에 지은 돌벼밥엔 모래가 있다²²⁾고 하기도 했고, 습기로 생긴 병이 증풍으로 변했으니 태생이 북쪽이라 남쪽 음식에 적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²³⁾이라고 토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는 유배 초기에 다산은 심적 고통뿐 아니라 육체적 고통 또한 심

20) <自笑>, 『與猶堂全書』, 一集, 四卷, “(상략) 網罟彌天舒翼輕, 落日齊山誰繫住, 衝風楚水可橫行, 同胞未必皆同命, 自笑迂儒闊世情, 草草冠裳是汝欺, 十年驅策秬奔疲, 智周萬物愚無對, 名動千人謗已隨, 不見紅顏多薄命, 由來白眼在親知, 蛇鱗蝸翼終何待, 自笑吾生到底癡 (하략)”

21) <夏日遣興> 詩序, 『與猶堂全書』, 一集, 四卷, “暑月臥病擁塞 有懷漢陽樓亭 風門颯沓無補 發狂大叫 然憶舊傷今 不失老杜秋興遺意云”

22) <響城雜詩> 其六, 『與猶堂全書』, 一集, 四卷, “榨魚油腥滿家 青蘇不種況芝麻 石苔充豆牝牽豕 山穠烹鏹飯有沙”

23) <響城雜詩> 其十六, 『與猶堂全書』, 一集, 四卷, “病濕經春癩疾成 北脾不慣喫南京 思服禁方蒼朮酒 小奴持纜問鄉名”

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위의 시에서는 오히려 장기 유배기를 회고하면서 지금 있는 곳 보다 나은 것으로 그리고 있다. 그 기준은 바로 채마밭을 가꿀 수 있는 공간의 여부이다. 이 시를 보면 장기 유배 때 다산이 머물렀던 곳은 비록 궁벽한 시골이지만 밭을 가꿀 수 있는 다소간의 땅이 있고 시야도 트여있는 곳이었던 듯하다. 장기 유배 당시에는 심난하고 괴로운 마음이었겠지만, 어느 정도 유배 생활에 적응하고 난 뒤에 정해진 거처 없이 답답한 성안의 주막에서 지내며 그 때를 돌이켜 보니 오히려 장기의 좋았던 점이 보이는 것이다.

이는 유배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현실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다산의 심경 변화를 보여준다. 특히 장기의 좋은 점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널찍한 땅이 있다는 것을 꼽은 것에서 유배의 고통을 지극히 현실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다산의 시선을 알 수 있다. 또한 마지막 구절의 유연으로까지 전하고픈 평생 채소를 먹고자 하는 뜻[平生咬菜志]은 앞서 본 세 번째 수의 채소를 먹는 일을 청재(淸齋)로 표현한 것과 연결된다. 이를 통해 단순히 유배의 생활고를 해결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유인의 그윽한 삶까지 이루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산에게 있어서 채마밭은 전원을 상징하는 관념적인 공간에서 그치지 않는다. 숨어사는 유인의 공간이지만 현실의 궁핍을 해소하는 실질적 기능을 갖춘 공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화소장공동파(和蘇長公東坡)>에는 밭을 가꾸는 구체적인 방법과 거기에 심어야 할 작물들이 세세한 언어로 표현된다. 이런 다산의 꿈은 결국 다산초당에서 채마밭으로 실천된다. 이런 모습은 앞서 본 <일일산보매하 ... (중략) ... 범팔십운(一日散步梅下 ... (중략) ... 凡八十韻>에서도 볼 수 있다. 언급했듯이 다산초당을 지금의 모습으로 꾸리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80운의 이 긴 시는 채마밭으로 만드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 제목에서도 돌을 쌓아 단을 만들고 단을 따라 계단을 만든 뒤 거기에 채마밭을 만들었다[砌石爲壇 因緣浸染於其上下爲砌九級 以爲菜圃]는 내용이 제일 먼저 나오고, 시에서도 채마밭을 꾸리는 과정이 가장 먼저 나온다. 특히 시에서는 분수를 따질 것 없이 채마밭을 가장 먼저 만들려고 한 데서 벌어진 일들²⁴과 그곳에 심어놓은

무[菁], 부추[韭], 파[蔥], 송채[菘], 쑥갓[茼蒿], 가지[落蘇], 상추[萵苣] 등과 같은 가지각색의 채소에 대한 설명²⁴⁾은 <화소장공동파(和蘇長公東坡)>에서 다산이 절실하게 바라던 채마밭의 모습을 떠오르게 한다.

이처럼 다산에게 있어 유인의 삶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선비가 선택해야 하는 차선이며, 이 때문에 유인의 삶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현실이 중요해진다. 다산초당이 지어지기 전에 쓰인 이 <화소장공동파(和蘇長公東坡)>는 유배 초 다산에게 절실한 것이 왜 수양의 공간이 아닌 지극히 현실에 닿아있는 채마밭인가를 보여줌과 동시에 다산이 생각한 이상적 유인 공간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게 한다.

3.2. 빈사(貧士)의 이상 공간 실천

<화소장공동파(和蘇長公東坡)>에는 채소의 종류와 경작 방법이 구체적으로 표현된다. 이를 통해 다산이 유배의 궁핍함을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채마밭 경작을 선택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는 다산초당에서 채마밭으로 실천된다. 즉 다산은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선비답게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최소한의 공간과 자원으로 가능한 채마밭 경영을 선택했던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채마밭 경영이 선비답게 해결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앞서도 말했듯 다산은 채마밭 경영을 통해 실질적인 궁핍을 해소하는 것에서 나아가 유인의 삶이라는 이상적인 은거를 실천하고자 하였다. 그것은 선비다움을 잃지 않기 위한 다산의 의도였다.

가난한 선비[貧士]가 산업(產業)을 경영하려고 생각하는 것은 형세가 그러한 것

24) <一日散步梅下 隱其榛蕪手持刀畚斫其纏糾 ... (중략) ... 凡八十韻>, 『與猶堂全書』, 一集, 五卷, “(상략) 拙分末違守 疆理先蔬圃 利近良易誘 山阿劇波陀 糞壤流不有 樹石列欄楯 削土平培塿 ... (중략) ... 畚鍤手自操 鋤勸諸友 殷也鬚有力 強筋絡雙肘 拔石似秋毫 移山學愚叟 快馬終一蹶 豪舉惜傷手 (하략)”

25) <一日散步梅下 隱其榛蕪手持刀畚斫其纏糾 ... (중략) ... 凡八十韻>, 『與猶堂全書』, 一集, 五卷, “(상략) 畦畛各脾剖 紫粒武侯菁 綠髮周顯非 晚蔥龍角苗 早菘牛肚厚 萵蒿花似藕 落蘇蔬如蕒 魯葵工潤肺 蜀芥能止嘔 萵苣雖多眠 食譜斯有取 蹲鴟特連畦 玉糝頗可口 壩地別榛蕪 旅生多野藪 廊廡畚藜莧 藩屏列杞柯 捫薇充羹滑 留艾備燠灸 緇次防鹿齧 插籬虞馬蹂 (하략)”

이다. 그러나 경작은 너무 힘들고 장사는 명예가 손상되니, 손수 원포(園圃)를 가꾸고 희귀한 과일과 맛있는 채소를 심는다면 왕용(王戎)처럼 찬리(鑽李)하고 운경(雲卿)처럼 참외(瓜)를 팔더라도 해로울 것이 없으며 좋은 꽃과 기이한 대나무로 자기 꾸며보는 것도 지모(知謨) 있는 일이다.²⁶⁾

위의 인용문은 다산의 외척이자, 강진 유배시절 제자 중 한명인 윤혜관(尹惠冠)에게 준 <위운혜관증언(爲尹惠冠贈言)>이다. 여기서 다산은 가난한 선비(貧士)가 생업을 유지할 방편으로 채소나 과일을 심는 원포(園圃)가꾸기를 추천한다. 이는 <화소장공동파(和蘇長公東坡)>에서 다산이 선택한 채마밭 가꾸기와 상통한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가난한 선비의 산업(產業)을 선택하는 다산의 기준이다. 현실의 궁핍을 해결하는 방법에도 차등이 있고, 그 기준은 바로 선비의 지모를 지킬 수 있는가의 여부이며 거기서 다산은 과수원이나 채마밭 경영을 선택한다.

다산초당의 주인인 윤박(尹博)의 손자이자 강진에서 수학했던 제자 중 한명인 윤윤경(尹輪卿)에게 보낸 증언에서도 종아리를 드러내고 흙탕물 속에 들어가 명예를 밀면서 거머리에 물려서 상하지 않은 곳이 없다면 곤경스러운 일이라며 논농사를 장사와 나란히 가난한 선비가 할 만한 일이 아닌 것으로 본다. 그러면서 윤혜관에서 주었던 증언과 같이 가난한 선비의 생산 수단으로 원포 가꾸기를 추천한다.²⁷⁾ 이런 태도는 아들 학연(學淵)에게 의식(衣食)의 근원으로 뽕나무 과 삼, 채소와 과일을 심는 것이 할 만한 일이며 이외 나머지 장사와 같은 것들은 결국 본전을 깎아먹고 본업까지 상실하는 일이라 가르치면서 부지런하고 검소하게 원포를 가꾸라²⁸⁾는 <시학연가계(示學淵家誠)>에서도 확인되며, 역시 학

26) 『與猶堂全書』, 一集, 十八卷, <爲尹惠冠贈言>, “貧士慮營產業勢也 然耕作力倦 商販名敗 唯手治園圃 種珍果芳蔬 雖王戎鑽李雲卿粥瓜 無傷也 須有名花奇竹 以文其織窗 亦知謀也”

27) <爲尹輪卿贈言>, 『與猶堂全書』, 一集, 十八卷, “雖然赤脛入泥水中 執八齒耙叱牛推輓 蜩針偏體 創痍無完 此男子困境 矧十指柔輓如葱者 雖欲自力得乎 不然持錢櫃坐浦口 伺遠島船來 與魚蟹子苦口力爭 冀錐刀之未得 刻人以傳己 撒謊哄騙 眸子突露 如鬱壘怒曠 斯亦天下之至拙 ... (중략) ... 故治生之術 莫如園圃畜牧及鑿爲陂池淨沼 以養魚鱗 門前一等肥田 區爲十餘畦 須極方正平均 捭次種四時蔬菜 以供家食”

28) <示學淵家誠>, 『與猶堂全書』, 一集, 十八卷, “且如衣食之源 唯種桑麻蒔蔬果 婦女勤於紡績 差可爲耳 餘如放子母錢 販買諸物及爲賣藥等事 皆一等齷齪人所能爲 稍有風味者 未有不消折本錢

연에게 준 또 다른 가계인 <시학연가계(示學淵家誠)>에서 처세에 관련하여 벼슬에서 해임이 되었을 경우에는 바로 고향에 돌아가 책과 예를 익히면서 틈틈이 꽃과 채소를 가꾸고 샘물을 끌어다 연못을 만들며 지내라²⁹⁾고 조언을 했던 부분이나, 제자인 <우위윤혜관증언(又爲尹惠冠贈言)>에서 벼슬길이 끊긴 양반이 생업을 잇기 위해서 과일을 심고 채소를 기르는 원포(園圃)를 가꾸는 일만한 것이 없다³⁰⁾고 한 것에도 나타난다.

이렇게 유배시절 다산이 아들들이나 제자들에게 했던 가르침에서 채마밭 경영은 단순하게 유배의 궁핍함을 해소하고 현실의 이익을 얻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현실의 궁핍을 해소하는 방법에도 선비의 지모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차등을 둔 것이다. 그런 차등이 있어야만 유배의 고통과 지난한 현실이 극복될 수 있는 것이었다. 이런 극복의 이상적인 방법으로 다산은 채마밭을 선택했다. 이렇게 채마밭은 유배에 처한 가난한 선비인 자신이 이룰 수 있는 이상적인 공간의 필수 요건이 된다. 따라서 유배 초기 다산초당이 지어지기 전 채마밭에 대한 열망을 풀어낸 <화소장공동파(和蘇長公東坡)>를 통해 다산초당 뿐 아니라 이상적인 선비의 공간에 대한 다산 인식의 시작점을 볼 수 있다.

古來治圃人	예부터 채마밭 가꾸는 사람도
亦如釣取適	유유자적하는 어부와도 같지
利細雖恥言	이익 적어 말하기는 부끄러워도
勝種梨與栗	배나 밤 심은 것보다는 낫다네
盤餼與羹材	반찬거리며 국거리
兼可塞隣乞	이웃에 가 빌지 않아도 되니까
卓犖蘇雲卿	그렇게 특출 났던 소운경을

喪其本業者 切須斷念 ... (중략) ... 克恭克愿 研精經典 克勤克儉 盡力園圃 用拙存道 省事鐫費 庶爲保家之賢胤也”

29) <示學淵家誠>, 『與猶堂全書』, 一集, 十八卷, “解官卽日還鄉 雖有切友同德 懇懇勉勵 勿聽也 居家唯讀書講禮 蒔花種菜 引泉爲沼 累石爲山”

30) <又爲尹惠冠贈言>, 『與猶堂全書』, 一集, 十八卷, “貴族遺裔 流落遐遠 數世以後 簪組遂絕 唯有農事足以養老慈幼 然農者天下之拙利也 兼之近世田役日重 廣作彌令凋敗 須補之以園圃 庶幾焉樹之珍果謂之園 藝之佳蔬謂之圃”

千載稱隱逸	천년 내내 은일로 컸던 것이지
所至宜食力	간 곳마다 내 힘으로 벌어들여
豈必在家室	가실이 있을 필요가 있겠는가
久欲買數畦	예전부터 몇 이랑 사고 싶어도
咎窳計未出	게을러서 방법이 없었는데
今年粥書來	올해는 매매문서가 와서
此願差可必	이 원이나 좀 이뤄졌으면

인용된 시는 <화소장공동파(和蘇長公東坡)>의 두 번째 수이다. 여기서 당나라 시인 잠삼(岑參)의 시 <어부(魚父)>의 유명한 구절인 “이 노인은 자적을 취한 것이지 고기를 취하려한 것이 아니네[此翁取適非取魚]”가 점화되어 채마밭을 가꾸는 일은 어부의 일과 동일하게 선비의 자적을 취하는 일이 된다. 대체로 어부는 초부(樵夫)와 함께 세상을 떠난 은일자를 대표적인 상징이다. 그런데 여기서 다산은 채마밭을 가꾸는 이를 농부라고 하지 않고, 채마밭을 가꾸는 사람[治圃人]으로 구분하면서 그의 채마밭 가꾸는 행위를 은일을 대표하는 어부와 동일 선상에 놓는다.

일반적인 농사일과 구분된 채마밭 가꾸는 일[治圃]은 평생토록 초막을 치고 갈옷과 짚신으로 채소를 심고 생계유지를 하면서 재상이 된 친구인 장준(張浚)의 도움도 받지 않고 살았던 송대의 은자 소운경(蘇雲卿)의 고사를 통해 보다 확실하게 은일을 상징하게 된다. 이는 앞서 다산이 제자들과 아들들에게 생계를 위해 돈을 버는 일에도 선비의 지모를 지킬 수 있는 일들이 따로 있으니, 농부들과 같이 몸을 혹사시켜 농사일을 하지 말라고 했던 당부와 연결 된다. 이처럼 다산에게 가난한 선비의 생업에는 이상적인 선비의 은일을 지켜내기 위한 차등이 존재한다. 거기에 선택된 것이 바로 채마밭 경영이다. 다산은 채마밭을 통해 가난한 선비의 이상적인 은일의 공간 즉 유인의 공간을 꿈꿨던 것이다. 이런 모습은 장기 유배기 때 쓴 <미원은사가(薇源隱士歌)>에서도 볼 수 있다.

거기서 다산은 은사(隱士)의 공간으로 미원(薇源)에 있는 심씨(沈氏)의 원림을 상세히 설명한다. 짧은 시절 벼슬길을 찾다 하루아침에 집을 팔고 산에 살 생각으로 미원에 정착해 황무지를 개간하여 벼[稻]와 조[梁]를 심고 생계가 어느 정

도 해결되자, 뽕[桑], 삼[麻], 닥나무[楮], 옷나무[漆], 대추나무[棗], 밤[栗], 감나무[柿] 등을 가꾸며, 돼지며 닭을 길러 집안사람들로 마을을 이루며, 48종이 넘는 국화를 심고 사는 심씨의 공간³¹⁾을 이상적인 은사(隱士)의 공간으로 그려낸다. <화소장공동파(和蘇長公東坡)>의 채마밭은 <미원은사가(薇源隱士歌)>에서 보이는 심씨의 공간과 상통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생계 활동이 채마밭으로 집약되는 구체성을 갖는다. 즉 채마밭을 통해 다산의 이상적인 은일 공간이 갖는 상징성과 의미가 구체화된 것이다.

秣黍皮須剝	벼와 기장은 껍질을 벗겨야 하고
茅粟殼須斷	밭도 껍질을 깎아내야 먹지만
唯蔬食通身	오직 채소만 통째 먹을 수 있으니
物性嗟純慤	그 물성 얼마나 순수하고 순박한가
未甚憂滂旱	장마나 가뭄을 걱정할 것 없고
兼非畏霜雹	서리도 우박도 두려울 것 없다네
樊遲信高弟	번지가 참으로 훌륭한 제자였지
爲圃要早學	채마밭 일 일찍이 배우려 했으니
菜部多脫落	채소부에 빠뜨린 게 많은
我笑張景岳	장격악은 우스울 뿐이구나
曩欲居金谷	지난번 금곡에 살면서
屢回凌确磴	누차 자갈땅 일구려 했던 것은
只爲際嘉運	행여나 좋은 운세를 만나
俸望雷雨濕	님의 사랑 받을까해서였지마는
今秋得買圃	올 가을에 채마밭만 사면
縛屋依山角	산 모서리에 집을 얹어 살리

인용된 시는 <화소장공동파(和蘇長公東坡)>의 여섯 번째 수이다. 앞서 3.1.절

31) <薇源隱士歌>, 『與猶堂全書』, 一集, 四卷, “(상략) 沈本京城宦家子 蚤年遊學求乘軒 一朝賣家歌 戴佩 扁舟渺然思林樊 徑投此地結衡宇 連筒引水開荒原 稻梁會計饒積著 僅指分耕列成村 石墻瓦屋整位置 寧經駝書學滋蕃 桑麻楮漆棗栗柿 駒犢鵝鳴鷄犬豚 家無鹽井百物具 祭祀燕飲不出門 生男學圃女學織 羽畎山裏朱陳婚 子壯克家翁乃老 栽花接果度朝昏 菊花之業尤絕世 四十八種標格尊 (하략)”

에서 보았던 세 번째 수와 같이 벼[稌], 기장[黍], 밤[茅栗]과 같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시어를 사용하고 있다. 다만 세 번째 수에서는 채소를 칭송하기 위해 구체적인 시어가 선택되었다면, 이 시에서는 채소의 월등함을 보이기 위해 선택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이 시에서는 채소가 벼나 기장과 같은 본격적인 논농사가 필요한 곡물이나, 밤나무와 같은 상품성이 강한 과실수보다도 월등한 작물이 된다. 이는 앞서 본 두 번째 수에서 비록 이익은 적지만 채소를 심는 일이 배나 밤을 심는 것 보다 낫다[利細雖恥言 勝種梨與栗]는 채소에 대한 평가도 일치한다. 그리고 그 이유는 더 손 갈 것 없이 그대로 먹는 순박하고 순수한 채소의 물성(物性) 때문인 것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채소는 생계를 위한 여러 작물 중에서도 가장 순수하고 순박한[純慤] 물성을 갖는, 가난한 선비가 고아한 유인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최적의 작물이다. 앞서 채마밭을 가꾸는 이[治圃人]를 농부와 구분하면서 어부와 같은 은자의 상징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이 시에서도 채소는 가난한 선비의 유인적인 생활에 최적의 작물로 은일을 상징한다. 그리고 이 상징은 공자 제자인 번지가 공자에게 채마 밭 가꾸는 법을 물었다는 고사를 통해 더욱 확실해진다. 이렇게 채소와 채마밭 가꾸기에 대한 구분은 네 번째 수에서도 보인다. 해초가 비록 종류가 많더라도 향긋한 채소와 비할 수 없으니 용고기[龍肉] 또한 결국 헛소리며, 산림에서 사는데 채소를 가꾸는 것만큼 호탕한 일이 없다고 하면서 역시 채소인 참외밭을 가꾸며 은일했던 소평(召平)의 고사를 사용해³²⁾ 채마밭을 유인의 상징으로 표현한다.

行休不自卜	가고 쉬을 스스로 점칠 수 없으니
自茲知機年	지금부터 몇 해나 더 살 것인가
我無蘇和仲	나는 소화중과 달리
屋頭三十錢	집 머리에 삼십전도 없으니
端居慮生理	가만히 앉아 살길 헤아려보니

32) <和蘇長公東坡>, 其四, 『與猶堂全書』, 一集, 五卷, “海棠雖種種 腥膻不足數 山蔬信香美 龍肉竟虛語 吾唯愛畦種 山林此豪學 高嫩不點斑 松肥不牽縷 芥臺雖崔嵬 勁幹自能拄 去蛙須光風 挑甲宜微雨 心芽既擢玉 褪葉斯充筍 耿耿慕茲樂 不能讓鄉土 因知種瓜者 自足配巢許”

上策唯菜田	상책으로 오직 채소밭뿐이구나
豪家厭淳母	부호들이야 순모도 물릴 것이고
審者甘蔗甞	음에 갇힌 자는 모전도 감지덕지라
所爭在飢飽	문제는 배가 고프냐 부르냐지
梁肉非遽賢	양육이면 그냥 좋은 게 아니야
不願棕攄倫	바라지 않는다네 종개 무리처럼
無惠食萬千	덕도 없이 천금 만금 누리는 것은

인용된 시는 <화소장공동파(和蘇長公東坡)>의 여덟 번째 수로, 마지막 수이다. 다산은 <화소장공동파(和蘇長公東坡)>에서 첫 번째 수와 마지막 여덟 번째 수에서 이 시의 배경이 되는 마정경과 소식의 고사를 사용하면서 시작과 마무리를 한다. 첫 번째 수에서는 벼를 위해 땅을 마련해주었던 마정경의 의리를 그리워하고[蕭條馬正卿 悵望仁聲高], 마지막 수인 이 시에서는 마정경의 배려로 채마밭을 가꾼 소식(和仲은의 자이다)과 그렇지 못한 자신을 견주며 결국 채마밭만이 유배 현실을 유인의 생활로 극복할 수 있는 상책(上策)임을 말하면서 마무리 한다. 앞서 다산은 소운경(蘇雲卿)이나 번지(樊遲)의 고사를 사용하여 채마밭 가꾸기를 유인의 상징으로 승화시켰고, 채소의 명칭과 기르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으로 채소가 선비에게 적합한 작물임을 드러냈다. 이를 통해 채마밭은 가난한 선비[貧士]가 생계에 매몰되지 않고 유인의 삶을 실현하기 위한 필연적인 공간이 되었다.

벼슬을 하지 못하고 은일을 할 수 밖에 없는 처지의 가난한 선비가 유인의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많고 좋은 음식과 자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 굶주림을 면할 정도여야만 한다. 그렇기에 다산은 덕도 없이 호사와 사치를 좋아했던 당나라 장상(將相)과 국척(國戚)이었던 두종(杜棕)과 왕개(王愷)의 고사를 들어 이를 경계한다. 궁핍한 삶을 해소하기 위해 노동을 하다보면 자연히 욕심이 생기고 결국 유인의 삶과는 멀어지게 된다. 다산이 경계했던 것은 궁핍한 현실에 매몰되어 선비의 지모(知謨)를 잃는 것이었다.

이는 앞서 봤던 <위운혜관증언(爲尹惠冠贈言)>에서 단순히 채마밭만 가꿀 것이 아니라 좋은 꽃과 기이한 대나무도 심어보라 했던 다산의 당부와 일치한

다. 이런 모습은 이 뿐 아니라 윤윤경(尹輪卿)에게 생활 수단으로 원포와 목축만 한 것이 없음을 말하면서 동시에 연못을 파 물고기를 기르고 과실수 사이에 작은 정자도 지으라고 했던 <위운윤경증언(爲尹輪卿贈言)>³³⁾과 닭을 기른다는 아들에게 양계에도 청탁(淸濁)의 차이가 있음을 말하면서 닭을 상세히 살펴 글이나 시를 써보는 등과 같은 방법으로 세속에서 맑은 운치(淸致)를 간직 하는 선비의 양계법을 가르치면서 이운을 취하는데 그치는 것을 경계했던 <기유아(寄游兒)>³⁴⁾에서도 볼 수 있다. 또한 앞서 본 다산의 의원기인 <제황상유인첩(題黃裳幽人帖)>에서도 갖가지 서적이 쌓인 집안의 모습과 담장 안에 심을 조경수와 연못을 먼저 설명한 뒤에 채마밭을 설명한다.³⁵⁾

다산초당을 만든 뒤에 쓰인 시에서도 역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 초당을 짓고 난 뒤 초여름에 쓴 <종죽(種竹)>에서는 지어놓고 난 뒤 담장 안에 대나무가 없어 생계의 바탕이 되는 채마밭을 좁히고 대나무를 심은 일을 시로 지으면서 몇 그루되지는 않으나 눈과 마음을 맑게 하기에 족하니, 산골짜기에 왕대가 천지인데 채마밭을 좁혀 대를 심었다 이웃이 비웃는다³⁶⁾는 말로 시를 마무리한다. 가타부타 없이 이웃의 비웃음으로 결구를 마무리 한 것은 오히려 가난한 삶에도 대를 심는 유인의 맑은 운치(淸致)를 돋보이게 한다. 역시 <매화(梅花)>에서도 가난한 선비의 초가집이 도력 높은 스님(枯禪)의 공간이 되고, 소식과 시를

33) <爲尹輪卿贈言>, 『與猶堂全書』, 一集, 十八卷, “故治生之術 莫如園圃畜牧及鑿爲陂池淳沼 以養魚鱗 門前一等肥田 區爲十餘畝 須極方正平均 捭次種四時蔬菜 以供家食 屋後閒地 多植珍果奇味 中起小亭 外張清韻 兼以守盜”

34) <寄游兒>, 『與猶堂全書』, 一集 二十一卷, “聞汝養雞 養雞固善 然養雞之中 亦有雅俚淸濁之殊 苟能熟讀農書 擇其善法而試之 或別其色類 或異其埒架 使雞之肥澤繁衍 勝於他家 又或作詩 寫雞情景 以物遣物 此讀書者之養雞也 若見利不見義 知豢不知趣 孳孳滾滾 與鄰人圃老 早莫爭鬪者 此直三家村裏拙夫子之養雞也 未知汝何所安 既養雞矣 須將百家書 鈔取鷄說 彙次作鷄經 如陸羽茶經 柳惠風之煙經 亦一善也 就俗務帶得淸致 須每以此爲例”

35) <題黃裳幽人帖>, 『與猶堂全書』, 一集, 十四卷, “牆內安百種花盆 若石榴梔子鬲陀之等 各具品格而菊最備 須有四十八般名色 方是僅具也 庭右鑿小池 方數十武 便止 池中植芙蓉數十枋 養鮒魚 別剗篔竹作水筒 引山泉注池 其溢者從牆穴流于圃 治圃須碾平 如淳水然 割之爲方畦 蔡菘葱蒜之等 別其族類 無相混糅 須用礫礮下種 苗生視之 有斑紉文 纔名爲圃也”

36) <種竹>, 『與猶堂全書』, 一集, 五卷, “新居頗愜意 草樹繞芳緣 所嗟堵牆內 仍少一枝竹 蔬圃割數丈 未暇愛地盛 澆纏手自劬 旅瑯無僮僕 蕭蕭三四枝 已足淸心目 庶幾年歲久滿眼見寒玉 霏霏一夜雨 新筍擢五六 本意持遠圃/ 食効乃爾速 愛護作藩蔽 情如養茸鹿 隣人笑余愚 質當滿山谷”

겨루고, 정현과 경전의 내용을 논박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도 초가 한 칸에 심어놓은 한그루 청고한 매화 때문³⁷⁾이라 한 것에서도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처럼 다산은 유배 현실을 유인의 삶으로 극복하기 위한 그 실천으로 채마밭이라는 가장 현실적이고 일상적이면서도 이상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는 다산초당으로 실천된다. <화소장공동파(和蘇長公東坡)>는 그 시작을 보여주는 시라고 볼 수 있다.

4. 맺음말

다산초당은 기거했던 곳 마다 원림을 조영했던 다산이 유배상황에 처해 현실적으로 유배의 곤궁함을 해소하면서도 유인적 삶의 실천을 통해 유배의 고뇌를 극복하려했던 이상 구현 공간이다. 특히 동시기에 쓴 <제황상유인첩(題黃裳幽人帖)> 등과 같은 이상적 생활공간에 대해 쓴 글들을 보면 다산이 원했던 이상적 삶이란 유인의 삶이며 따라서 유인의 삶이 실천되는 공간을 계속해서 꿈꿔왔던 것을 알 수 있다. 다산초당이 지어지기 3년 전에 쓴 <화소장공동파(和蘇長公東坡)>는 다산의 이상 공간에 대한 구상의 시작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작품이다.

따라서 본고는 <화소장공동파(和蘇長公東坡)>에 드러난 다산의 이상적인 유인 공간의 특성을 크게 유배상황의 무실적 해결과 빈사의 이상 공간 실천 두 가지로 보았다. 다산은 유배를 현실로 인지하고 현실의 궁핍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소한의 땅과 자본으로 이를 수 있는 채마밭을 선택했다. 그러나 다산은 궁핍을 해소하기 위해 현실에 매몰되는 것을 경계하였다. 가난한 선비(貧士)로서 처한 현실을 도피하지 않되 최선을 다해 선비의 고아한 흥취를 잃지 않으려했던 것이다. 그러기에 채마밭 경영은 또한 선비에게 적합한 노동 행위였다. 다산은 채소나 채마밭과 관련된 유인의 상징을 사용해 세속에서도 잃지 않는 선비의 맑은 운치(淸致)를 지키고자 했다. 다산은 가난한 선비가 가질 수 있

37) <梅花>, 『與猶堂全書』, 一集, 五卷 “芳池草閣只蕭然 蕪竹栽松自去年 塵裏相忘皆醉客 山中忽過是枯禪 猥將佳句方蘇軾 謾挹殘經駁鄭玄 一樹梅花淸似許 燒香端坐白雲邊”

는 이상적인 유인 공간을 채마밭을 통해 구현하고자 한 것이다.

이렇게 본고에서는 <화소장공동파(和蘇長公東坡)>로 다산의 유인 공간의 특징을 살펴 다산이 유배 현실을 극복 의지와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이상 공간의 초기 구상을 보고자하였다. 다만 시 한 편으로 다산의 이상 공간을 파악하는 것은 분명 무리가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다산초당으로 구현되기 전인 유배 초기 다산이 생각했던 이상 공간에 대한 단면이 담겨 있는 <화소장공동파(和蘇長公東坡)>가 갖는 의미가 매우 크며 이는 다산의 원림 인식과 이상 공간을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1. 자료

- 정약용, 『韓國文集叢刊 與猶堂全書』, 민족문화추진회.
다산학술재단 편, 『正本 與猶堂全書』, 사암, 2013.
정약용, 『(국역)다산시문집』, 민족문화추진회, 1982-1994.
정규영 편, 송재소 역주, 『사암선생연보 다산의 한평생』, 창비, 2014.

2. 내용

- 서동일·이재근, 「강진 농산별업(農山別業)의 공간구성에 대한 기초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0집, 한국전통조경학회, 2012, 64-71쪽.
(UCI : G704-000555.2012.30.2.006)
- 심우경, 「조선후기 지식인들이 선호한 조경식물과 조경문화」, 『한국실학학연구』 12집, 한국실학학회, 2006, 91-121쪽.
(UCI : G704-001622.2006..12.008)
- 안대희, 「18·19세기의 주거문화와 상상의 정원 - 조선 후기 산문가의 記文을 중심으로」, 『진단학보』 97집, 진단학회, 2004, 111-138쪽.
(UCI : G704-000336.2004..97.005)
- 안세하, 「조선후기 상상의 공간을 소재로 한 기문의 창작 배경과 특징」, 『漢文古典研究』 27집, 한국한문고전학회(구 성신한문학회), 2013, 99-129쪽.
(UCI : G704-002001.2013.27.1.006)
- 양영아·박은영·박휘, 「선비문화가 조선시대 별서정원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1집, 한국전통조경학회, 2003, 9-20쪽.
(UCI : G704-000555.2003.21.1.001)
- 정민, 「다산 정약용의 이상주거론」, 『동아시아 문화연구』 47집,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10, 125-150쪽.
(UCI : G704-SER000014876.2010..47.006)
- 황민선, 「다산 정약용의 원림관을 통해서 본 <茶山花史>」, 『국학연구논총』 13집, 2014, 235-262쪽.
(UCI : G704-SER000003095.2014..13.004)

| Abstract |

A Review of Dasan's Seclusive (幽人) Space Appearing in <Hwasojanggongdongpa (和蘇長公東坡)>

Hwang, Min-sun

<Hwasojanggongdongpa (和蘇長公東坡)> is an original work of Dasan's ideal seclusive space for the ideal space of the early exile. In particular, Dasan is trying to realize his life as a human being by writing about Dasanchodang and the Ideal Space during this period. Therefore, this study tended to see the ideal seclusive space of Dasan through <Hwasojanggongdongpa (和蘇長公東坡)>. Therefore, the attitude not to flee the reality but to do the best and try to be true (務實), and a poor scholar's willingness not to be burdened with poverty and but willing to protect the preciousness through sequestration was contained in his ideal seclusive space. Thus, before <Hwasojanggongdongpa (和蘇長公東坡)> was implemented in Dasanchodang, it is a work containing a section about the initial conception of the ideal seclusive space thought by Dasan, and it is thought that it plays an important role in understanding Dasan's perception of the forest landscape and the perception of the ideal space more deeply.

Key words : Dasan Jeong Yak-yong, Hwasojanggongdongpa(和蘇長公東坡), Dasanchodang, exile, 幽人, seclusive space, ideal space

